

‘열여섯 장미사춘기’ 곡성군, 장미로 물든다



내달 22~31일 심진강기차마을서 ‘세계장미축제’ 버스킹 챌린지·로맨틱 프로포즈·포토존 추억 선사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곡성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5일 곡성군에 따르면 16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열여섯 장미사춘기: 설편·성장·변화’란 주제로 관광객들에게 한층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축제 전반에 변화를 시

도한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축제장 확장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행운의 황금장미를 찾아라’는 기존 잔디광장에서 치치뿌뿌놀이터 앞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더욱 넓은 공간에서 운영된다. 여기에 실과 홍보존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

께 이동해 대규모 체험존으로 꾸며지며, 축제 공간 역시 기차마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축제장 곳곳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도 조성된다.

잔디광장에는 방문객들이 쉬어가며 사진 촬영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심이 있는 포토존’이 마련돼 축제의 낭만을 더할 전망이다.

공연 프로그램도 한층 다채로워진다. 장미공원에서 전국 인디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장미공원 버스킹 챌린지’가 펼쳐지

고, 중앙무대에서는 ‘로맨틱 로즈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16개 콘셉트의 개막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지역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 48팀, 곡성군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역 출신 가수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 무대를 선보인다.

이에 군은 보다 완성도 높은 축제를 위해 최근 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 구성을 점검

했다. 주차와 교통 대책을 비롯해 유아·노약자 편의 제공, 환경 정비, 불법 노점상 단속, 먹거리 위생, 물가 관리, 의료 지원 등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심진강기차마을의 장미라는 차별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셉트와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도 오감만족 축제와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나주, 노란 봄빛 물든 유채꽃 향연 ‘관광객 유혹’

나주시가 영산강 둔치에 대규모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 봄꽃 경관과 관광 인프라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영산강 둔치 일원에 약 5ha 규모의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고, ‘2026 나주방문의 해’ 봄맞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유채꽃 단지는 영산강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나주의 대표 봄꽃 명소로 노란 꽃물결이 장관을 이루며 방문객들에게 여유로운 휴식과 계절의 정취를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채꽃은 오는 11일

영산강 따라 5ha 규모 조성...4월 중순 절정 전망 ‘방문객, 꽃길 따라 여유로운 봄의 추억 만끽하길’

전후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봄을 대표하는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동심 산책로에 아자매트를 새롭게 설치해 보행 편의를 높이고 보다 쾌적하게 꽃길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장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5월 중순부터는 둔치 약 4ha 규모에 붉은 꽃양귀비가 개화하고, 들섬 일원 12ha에는 붉은색, 분홍

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의 꽃양귀비와 끈끈이대나물이 순차적으로 피어나 봄철 경관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영산강 둔치체육공원과 스포츠파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며 주차장부터 유채꽃 단지까지 도보 약 3분 거리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영산강정원에는 입구 화단을 중심으로 펜지, 데이지, 비올

라 등 다양한 봄꽃이 정원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시는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사계절 꽃 경관 조성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꽃단지를 통해 체류형 관광 여건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용 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영산강을 따라 펼쳐진 유채꽃이 나주의 봄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하고 있다”며 “방문객들이 꽃길을 따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고흥물,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고흥사랑상품권 결제 등 도입

공공 온라인 쇼핑몰 ‘고흥물’이 최근 납도장터 연합몰 시스템과의 통합 운영에 들어가며,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을 통해 메인 화면과 카테고리 구조를 개선하고, 기획력 및 상품 노출 기능 강화, 모바일 이용 편의성 확대 등 사용자 중심 쇼핑 환경을 구축했다. 빠른 상품 탐색과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구매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고흥물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선물 수요 증가에 대응한 ‘선물세트관’을 새롭게 신설하고, 가격대별 추천 상품 구성과 직관적인 상품 탐색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 편의성을 높였다. 명절뿐 아니라 일상 선물 수요까지 아우르는 상품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특별 상품 선보이는 정기 기획전 ‘사랑님이 결심했수’를 운영해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군은 5월 고흥물 모바일 앱을 출시하고, 지역화폐인 ‘고흥사랑상품권’ 결제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흥물 관계자는 “이번 납도장터 연합몰 시스템 통합과 홈페이지 리뉴얼, 향후 앱 출시 및 지역화폐 결제 도입은 공공 온라인 유통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보성, ‘따숨 한끼 식사배달 지원사업’ 추진

보성시니어클럽과 복지사각지대 해소...고독·고립 예방

보성군은 고독·고립 위험 가구에 대한 선제 대응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따숨 한끼 식사 배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따숨 한끼 식사 배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보성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사 지원과 생활 모니터링을 연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되며, 결실 우려가 있는 40세부터 64세까지의 고독·고립 위험 중장년 7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월 1~2회 밀반찬 지원과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이다.

양 기관은 식사 지원과 정기적인 방문 모니터링을 병행해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군은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개인 거부 및 고립 심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고독사각지대 안부 살피기’, 고독·고립 사망자의 주거지 ‘특수청소 및 유품 정리’, 365일 안부 확인을 위한 ‘스마트 돌봄 플러그’ 지원, 고독·고립 위험 가구 발굴 및 예방 홍보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중장년 대상 ‘따숨 한끼 식사 배달 지원사업’, 노인 대상 ‘AI 안부 전화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지 청소



·소득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 클린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독·고립 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참여형 축제로

군, 9월 11~13일 회진항 물양장 일원...의병 역사 재조명

장흥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인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회진항 물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5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 회령포 축제 추진위원회는 최근 제1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축제 추진 일정과 조직 구성을 확정했다. 회의에서 이만호 회진면면민회장이 축제추진위원장으로 선임돼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추진위원회는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지역 역사 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콘텐츠를 통해 교육적 가치와 관광 매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장흥 지역 의병장 마하수, 정경달 장군 등 지역 의병의 역사와 인

물들을 적극 조명해 장흥만의 독자적인 역사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형 축제로 운영해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만호 추진위원장은 “회령포는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재건한 명량대첩의 출발점인 만큼, 그 역사적 무게에 걸맞은 품격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며 “특히 장흥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프로그램 곳곳에 녹여내어 타 지역 이순신 관련 축제와는 차별화된 장흥만의 색깔을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여수시는 최근 여수를 방문한 황중우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에게 해양관광과 수산분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현안 건의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어업인 지원 5대 핵심 과제 제시

여수시는 최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여수를 방문한 황중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관광과 수산분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주요 과제는 국제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 국제해양레저관광 복합센터 건립, 남도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 대응 방안 마련 등이다.

시는 국제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엑스포 여객터미널 내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설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도서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화 운반선 건조 지원의 필요성과 매년 반복되는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수산물 정부 구매, 재해보험 제도 개선, 월동장 지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건의과제는 여수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도서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진 기자 swj3318@gwangnam.co.kr

화엄사 ‘생명 존중’ 발걸음으로 물든다

올해 첫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걷기 프로그램 진행

마음 치유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누며 화엄사 일원을 걷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일 열린 2026년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첫 걷기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인문형 탐방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화엄사의 역사와 자연 체험이 주된 내용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화엄사 경내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 계절 화엄사는 각황전 앞 흥매화와 수령 350년 울바나무, 들매

화가 활짝 피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해금 라이브 공연도 펼쳐졌는데, 사찰의 고즈넉한 공간에서 울려 퍼진 봄 선율이 특별한 매력을 발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구례군이 공동 주최한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화엄사에 이어 사당암, 천은사, 오래된 마을길 등 구례 곳곳에서 연중 펼쳐진다.

구례=이만구 기자 city@gjdream.com



구례군이 최근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 화엄사 일대에서 올해 첫 번째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걷기 프로그램을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